



'디자인비엔날레' 이번 주말 놓치지 마세요

31일 폐막...마지막 관람객 발길 이어져 애플화전당·은암미술관 특별전도 관심

수백 개의 노란 공이 담긴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헝가리 작가 키스미 크로스의 작품 'Ball Room'은 역시 인기 만점이었다. 유치원생부터 학생, 노인들까지 전시장을 찾은 이들은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역동적인 미디어 아트가 인상적인 정인 작가의 작품 역시 인기가 높았다.

오는 31일 폐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마지막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 기간이 길어 전시 관람을 잠시 미뤘다면 이번 주말 시간을 놓치지 말자.

24일 찾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유치원, 초중고 등 학생 단체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본전시관에는 중간 고사가 끝난 10월 중순부터 학생 단체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매일 2500~30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지금까지의 전시에 비해 관람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데다 전시장 공간과 작품들이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지면서, SNS 등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이들도 많다.

'휴머니티(HUMANITY : Human+Community)'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50개국에서 디자이너 650여명, 기업 120여개가 참여해 11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본전시관인 비엔날레 광장에 들어서면 삭막한 도심에 푸른 기운을 전하는 팝업 가든이 눈에 띈다. 네덜란드 출신 빈센트와 인디의 작품 'Urban Bloom'으로 17m 규모의 도시 정원엔 나뭇잎 컬러가 투명하게 비치는 풍선이 공간 위에 매달려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세계 근대 디자인의 근간 '바우하우스'를 조명한 전시에서는 바우하우스 건축 축소 모형과 함께 바우하우스 정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의자와 테이블, 조명 세트 등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기 작품 중 하나인 키스미크로스의 '볼 룸'에서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을 만날 수 있으며 노래방 형식을 차용한 '슬기와 민'의 작품, 안상수 작가의 한글 타이포 그래픽 등 바우하우스 정신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국내외 14명(팀)의 작품들도 전시중이다.

3갤러리 '기업관'에서는 스피커도 예술의 될 수 있음을 보여준 'NAPAL 3',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애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섹션, 상상력 넘치는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준 기아 디자인웍스의 공간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4갤러리에 조성된 '휴먼시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공간들을 놀이터처럼 꾸며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마지막 5갤러리는 광주 디자인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2관에서는 모두 466점의 작품이 전시중인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포스터초대전'과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등이 합께한 '국제디자인 대학 특별전'을 만날 수 있으며 은암미술관에서는 25개국 5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한반도 평화통일국제디자인전'이 진행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치유와 화해, 그리고 경계를 넘어' '코리아 로드 런' 27일부터 5개 도시서 공연

문화예술로 휴전선을 넘어 유럽까지.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이사장 이계양)'이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읍, 순천, 여수, 거창, 산청 5개 도시에서 전국 투어 공연을 개최한다.
'코리아 로드 런'은 문화 예술행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의 오페라 갈등을 해소, 궁극적으로 남과 북,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평화의 담론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돼 2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전국 투어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용 무대 차량인 18t 트럭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공연·전시 등을 펼치는 기획으로,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50개 도시를 찾아갈 계획이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치유와 화해, 그리고 경계를 넘어'. 이번에는 역사적, 이념적 이유로 학살의 현장이 된 아픔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펼친다.

첫 공연은 27일 오후 2시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인 정읍(정읍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은 가수 김원중(사진)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곡 '부활하는 사랑', '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을 무대에 올리고, 오월여머니합창단, 박관서 시인, 샌드아티스트 주홍 작가 등이 참여해 음악 공연, 토크 콘서트, 드로잉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이날은 조용근 명창이 창작판소리 '천명' 중 '하늘님이시여'를 선보이고, 김석환·유대수가 택견무를 공연하는 등 정읍 지역 예술가들도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 무대 근처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진·영상 자료 전시회를 연다.

다음날에는 10·19 여순사건이 일어난 순천(2일·순천만국가정원)과 여수(3일·이순신광장)에서 공연을 갖고, 한국전쟁 당시 공비 소탕을 명목으로 양민학살사건이 벌어진 거창(9일·거창사건추모공원)과 산청(10일·지리산 목화장터)를 찾아갈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작가와 독자가 만나 '자란다'

순천아트북페어 26~27일 순천시청년센터

지역에서 만든 책을 선보이고, 다른 지역의 창작자들도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전국의 독립출판물을 볼 수 있고 창작자와 독자가 만나 교류하는 최초 전남 독립출판축제가 그것.

독립서점 '책방심다'가 개최하는 제2회 순천아트북페어 '자란다'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청년센터 꿈꾸는 정촌에서 열린다. 전국 50여 개의 창작자(팀)가 참여하며, 실제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연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주제 '자란다'는 두 개의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잘한다'"와 "우리가 잘 자라고 있다는 '자란다'"가 그것이다.

대부분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가 소비자가 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북페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창작자가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잘 자라 보겠다는 다짐"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부와 순천시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소규모 독립출판마켓, 사소한 독립출판의 맛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강연, 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독립출판시애타학교' (8월26일~10월2일)를 통해 순천 청년들의 개성이 담긴 18편의 독립출판물을 출간했고, 이 책들도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책방심다 김주는 대표는 "이번 아트북페어가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서양화가 이인성

지원금 1000만원...양나희·정나영 특별상

서양화가이인성(37·사진) 작가가 제25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는 지난 23일 광주 동구 미로센터에서 광주미술상 본심사를 갖고 이 작가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광주미술상은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광주·전남 연구 청년작가들에게 선배 미술인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해마다 창작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수상자에게는 운영위원 선배미술인들의 격려의 마음과 광주시 후원으로 마련된 창작지원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이 작가는 2016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스튜디오와 북경창작스튜디오, 일본 코칸네초바잘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광주·서울·순천 등지에서 9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16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전(무각사 문화관), 호남의 현역작가들(전북도립미술관), 2017하정용청년작가 초대전(광주시립미술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DIVE INTO YOU'전(은암미술관) 등에 참여했다.

이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근래 들어 개인사적으로나 외부 환경들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속에서 힘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미술계 선배들의 큰 격려로 새롭게 기운을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기표현들이 순식간에 공유되는 시대 안에서 실낱같은 존재감을 확인하며 희망과 박탈감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아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인 화폭에 개인의 사건과 경험들을 은유적으로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본심에 올랐던 양나희(37·회화·설치)와 정나영(36·도예·설치·행위예술)에게도 특별상으로 각 15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7080 가을 낭만'

통기타페스티벌 26일 남구문화예술회관

지역 통기타 동호인들이 한 데 모여 펼치는 통기타 음악 축제.

'제1회 광주통기타 페스티벌'이 26일 오후 4시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빛고을통기타PHILOS(사진), 광주상록수통기타, 광주통기타클럽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통기타 동호인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은 통기타가 유행했던 70~80년대 대표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형원의 '개똥벌레', 이재성의 '그집앞', 해바라기의 '어서 말을 해' 등 가요 28곡을 무대에 올린다. 부산 출신 혼성 그룹 '달달한 배꾸', 함안의 혼성 듀오 '에그리나'도 출연해 '미운 사랑', '암연'

등을 선보인다. 공연 마지막 순서로 전 출연진들과 함께 '바다 새'를 함께 부르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기타반 수강생들과 '낭만 배짱이' 등 음악인들도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디자인에 활용성까지 재활용 가치를 높인다"

ACC, 25~26일 '업사이클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업사이클 프로젝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워크숍,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 업사이클은 '재활용 소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가미해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하늘마당 일대에서 'ACC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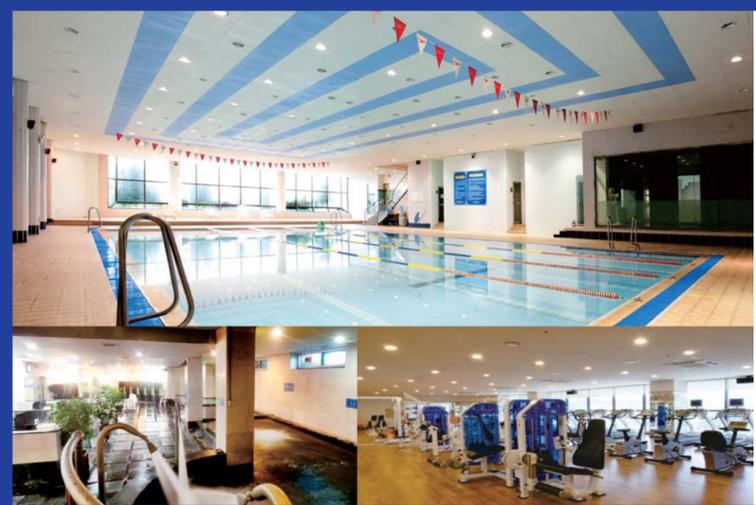
문화전당은 지난 7월부터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지역 디자인 랩'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ACC 환경 캠페인은 하늘마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하늘마당 사용설명서'와 친환경 종이박스로 만든 '착한 돛자리'를 전달하고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 워크숍은 다양한 친환경 디자인, 업사이클 제작 체험을 제공한다. 또 오는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펍 스튜디오(민주평화교류원 지하1층)에서 업사이클 디자인 전시와 네덜란드 디자이너 데비르 하켄스의 '업사이클 시스템 제작 워크숍'이 진행된다.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컬처마켓은 브릿지 마켓, 키즈데이, 굿데이를 포괄하는 대중마켓과 파트너스 데이로 명명된 콘텐트 마켓으로 운영된다. 특히 25일 열리는 'ACM 파트너스 데이'에서는 아시아컬처마켓 현황과 함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전방안 토론회도 개최된다. 또한 25~26일(오후 6시부터)은 하늘마당에서는 ACC업사이클 공연 '체인지업'과 'ACM 야의 음악회'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